



2026. 8. 21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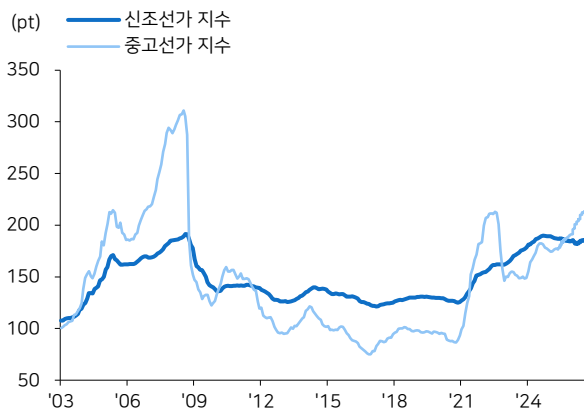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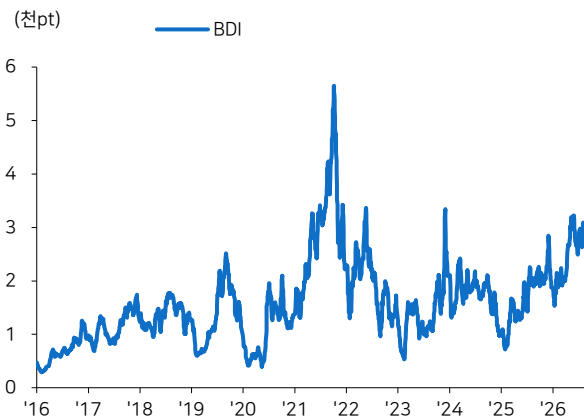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5.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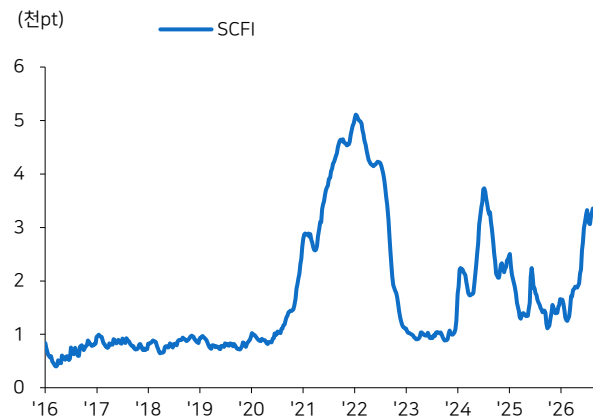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76.0p (-3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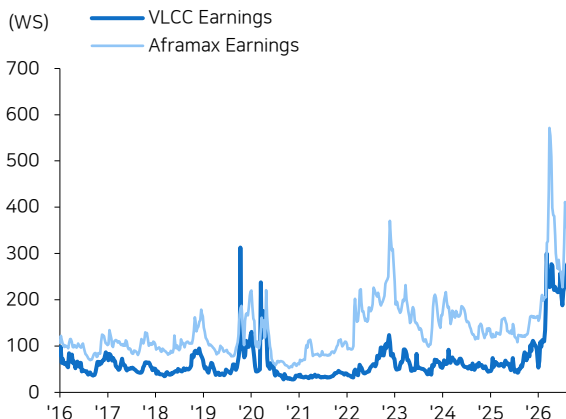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355.2 (+79.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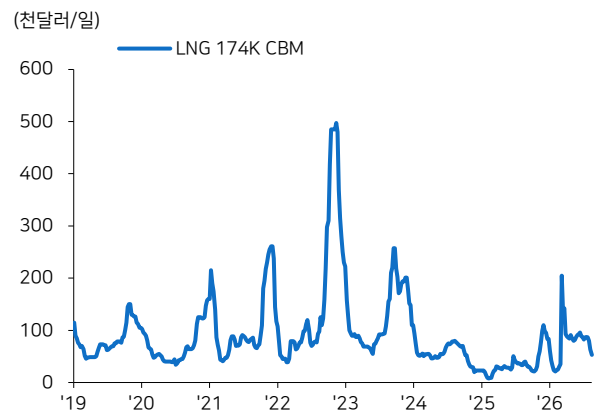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79.3WS (+4.7p WoW)



LNG Spot 운임

53.3천달러 (-10.1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韓·중에 밀린 LNG 선 되찾자"...日, 9년 만에 독 신설 (한국경제)

<https://zrr.kr/eOmVv4>

일본이 LNG선 건조 재개를 위해 2035년까지 나무라조선소에 대형 독을 신설하고 연간 3~5척 생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LNG선 건조 중단으로 약화된 공급망과 멤브레인형 LNG 탱크 기술 확보를 위해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와 기술 협력·이전을 검토한다고 전해짐. 일본 정부도 조선업에 2035년까지 민관 합계 1조엔을 투자하고 LNG선 국산화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산업 재건에 나선다고 알려졌다.

투자·301 조·조선 얹힌 대미전선...통상수장 공백 속 김정관 '협상 전면' (뉴시스)

<https://zrr.kr/Fads7f>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으로 통상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협상 전면에 나섰다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USTR 대표·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연쇄 회동하며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301조 조사 및 조선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정부는 이달 말~다음 달 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조선협력 등 산업·안보 현안을 포함한 대미 협상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HD 현대중, 美 서·남부 조선소 2~3 곳 인수 후보로 압축 (조선일보)

<https://zrr.kr/Nnhh7M>

HD현대중공업이 마스가(MASGA)와 연계해 미국 현지 조선소 2~3곳의 인수를 추진하며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Cerberus 및 산업은행과 조성한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지역 조선소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미국 함정 수주를 위해 현지 생산거점 확보가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조선소 가치 상승과 인수 가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HD 현대중공업·한화오션, 41 조 그리스 국방개편 타고 현지조선소 동맹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vZBvMk>

그리스가 2036년까지 258억 유로 규모의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며 자국 조선 생태계 재건에 나서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현지 조선소들과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오넥스와 13억5,000만 유로 규모의 트라이던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형 수리·군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HD현대중공업은 스카라마가스 조선소와 MEKO급 호위함 개량 및 특수선 공동 건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양사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그리스의 신형 잠수함 4척 도입 사업과 유럽 함정·MRO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고 알려졌다.

美 의회, 한국 군함 건조 제동 움직임 "일자리 축소·안보 우려" (더구루)

<https://zrr.kr/SXyiX9>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일본 조선소를 통한 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방안에 대해 일자리 유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알려졌다. 하원을 통과한 NDAA안 등이 전투함·군수지원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안보 면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수주는 의회의 예산 승인과 법 개정이라는 제약이 있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한화는 필리핀조선소 인수와 오스탈 USA 인수를 추진하고 HD현대도 미국 조선소 지분 매입·인수를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거점 확보와 기술 협력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LNG rates slump to eight-month lows as tonnage builds (TradeWinds)

<https://zrr.kr/c0duaN>

현대식 LNG선 스팟 용선료가 선복 공급 증가로 연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대서양 항로 기준 약 2만달러/일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대서양 시장은 채용선 물량이 집중되며 급격한 운임 하락세를 보인 반면, 태평양 항로는 화물별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신조 LNG선 인도 증가와 제한적인 화물 수요로 2027년까지 약세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겨울철 수요와 호르무즈 해협 변수에 따른 운임 반등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